

베트남 초짜들을 위한 "생존" 지침서



베트남에서

맛깔나게

작업하기



아디출판사



<작가 소개>

이름 : 베짖이

2016년 7월 13일 처음 결성되었다.
아니, 결성되었다기 보다는 만났다는
표현이 어울리겠다.

그들은
서로 알고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다.



서로 친한척을 하고 있는 베짖이의 모습

그들은 4명의 개인을 "우리"로 칭하게
만든 배후세력을 찾아 매일을 헤맨다.
그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동생이
가장 멋있고 잘생기고 똑똑하다.

베짱이

초판권등록

아디출판사

베트넘에서

맛깔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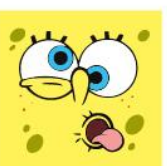
살아보기

M a n n e t m a n n e t

M a n n e t m a n n e t

p u c c i n i p u c c i n i

g o s s a m g o s s a m



< 목 차 >



머리말	3
달력(영어로는 캘린더)	4
활동소개	5
- city tour	6
- 스마일 레스토랑	9
- 답사	13
- 베트남어 수업	16
개인에세이	20
꼬리말	46
부록	47



<머리말>

안녕하세요.

에구머니나, 어느덧 한달이 지났네요.

신탄리행 티켓 하나 잘못 샀다고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

아, 눈을 떠보니 호치민에 오셨네요.

아니지.

내가 호치민에 온 것인가 호치민이 나에게 온 것인가

그것은 모두 허상, 운명의 데스티니

기다려라 라온아띠여 기다려라 조국이여

오늘도 김밥 한 줄 놓고 갑니다^^ @)))))))))

ㅂ오빠 강남스타일ㅂ

9월 2...

	목	금	토
일	수	화	일
11 교회, 카페, 레스토랑 with 씨	12 베트남어 공부	13 ★답사★ (스마일, UTE, 홍안)	10 City tour ★
18 교회 갔다 가 처음으로 우리끼리 씨투기	14 홍안에서 추석을~	15 베트남어 공부	17 khong co gi h
25 씨와 함께하는 한국음식 만들기 대작전!!!!	19 베트남어 공부	20 스마일 레스토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16 ★답사★ (레딘친), 베트남어 시험...
26 베트남어..	21 베트남어 공부	22 베트남어 공부...	23 베트남어..
27 스마일 & 밤에 무서운 영화를 봤더니 씨가 무서워서 누나네 방에서 자고 감	28 베트남어..	29 Y class 면접! 인데 사람이 별로 안왔대..	24 전에 길을 몰라 썰매 는데 한 아저씨가 와서 도움을 주셨다. 그러다 연락이 닿아 그 분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다.
		30 베.남.공 & 마지막 시험 두둥	

근데 우리가 시험을 잘봐서 1주만 더 공부하고
그다음주부터는 바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당



여러분
봉사활동 참 좋아하시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City tour



우리가 뭘 했노!!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1 교회, 카페, 레스토랑, 아파트	12 베트남어 공부	13 베트남어 (스피킹, UTE, 물건)	14 홍익에서 초석	15 베트남어 공부	16 베트남어 공부	17 khong cog 1
18 교회, 아파트, 레스토랑, 아파트	19 베트남어 공부	20 스피킹 레스토랑에서 연습	21 베트남어 공부	22 베트남어 공부	23 베트남어 공부	24 베트남어 공부
25 친구들과 함께 하는 한국 음식 만들기	26 베트남어 공부	27 스피킹 - 27	28 베트남어 공부	29 Y class	30 베트남어 공부	31 베트남어 공부

YMCA 대학생 봉사자 3명, 스텝 1명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시티로 향했다.



노랑게 칠해진 날에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5개월동안 살게 될 도시인

호치민을 직접 걷고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다.



Feedback

-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갔는데 너무 재밌었다!
 하지만 사무국의 방침이니까 앞으로는 타지 말아야지 ㅎㅎ



- 무작정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느낌이 든다.
 테마가 있는 여행이었으면 어땠을까?

각자의 생각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티투어라 우리끼리 가는 것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같이 많은 얘기들을 나누다보니 정도 많이 들었다.
 다만 구경만 하고 계속 걸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

“근우”

각자의 생각



입국한지 3일만에 아, 호치민이란 이런 곳이구나 느낄 수 있었다.
오 여기가 외국이긴 외국인가 보네.

“준호”



캄보디아에서 처음 오토바이를 타 본 이후로,
두 번째로 생각보다 매우 안정감 있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서 1군으로 갔다.
베트남에 오토바이가 많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상상 그 이상으로 많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은 우기여서,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산은 필수템이다.
1군은 우리가 사는 투득보다 발전된 곳이라서,
외국인도 많고 높은 건물도 많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없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았다.
한국에서 바리바리 다 챙겨온 것을 살짝 후회한 시간.

“하은”

두 번째. 스마일 레스토랑



우리가 뭘 했노!!

일	월	화	수	목	금	토
				8 입국 이체호	9 오티 & 주변산책	10 City tour ★
11 교회, 카페, 레스토랑 with 친구	12 베트남어 공부	13 베트남어 스마일, UTE, 중간	14 홍콩에서 추석 들~	15 베트남어 공부	16 베트남어 공부	17 khong co g h
18 교회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19 베트남어 공부	20 스마일 레스토랑에서 결혼식 일주일	21 베트남어 공부	22 베트남어 공부...	23 베트남어 공부	24 베트남어 공부
25 친구들이 한국에서 대행한다!!	26 베트남어..	27 스마일 ~ 27 베트남어 공부	28 베..	29 Y class 만남!	30 베트남어 공부	31 베트남어 공부

2000VND(100원)만 있다면

누구나 이곳에 와서 한 끼 식사를 대접 받을 수 있다!

봉사자들만으로 구성되었음에도 장기간동안 운영되어 왔다.

준비한 음식이 떨어지면 다른 음식을 준비해서라도 식사를

못하고 돌아가는 이가 없게끔 한다.



노랑게 칠해진
날에 했어요!

그래서 이 곳에서 만나는 다양한 봉사자들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된다.

서빙, 배식, 설거지, 잔반처리와

같은 4파트로 구성되어

한 주에 한 번 씩 역할을 바꾸었다.



Feedback

- 라온아띠 활동복 입고 가자!!

- 호치민에 있는 다양한 스마일 레스토랑에서 봉사해보자!!

- 매주 역할을 바꾸는 것, 좋아!!

각자의 생각

취지는 좋은데 그와 달리 양복을 입거나 이쁜 옷을 입는??

그러니까 딱봐도 잘 살아 보이는 사람들도 그냥 밥을 먹으러 들어온다.

그리고 꽤 많은 수의 인근 대학생들이 여기로 밥(학식?)을 먹으러 온다.

그렇다고 아, 저기 여기는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식당입니다 허허

오지 마시져. 이럴 순 없어서 살짝 심란하다.

“준호”

“한국 어디보다 크다” “마치 홍대같다” 우리가 지내는 곳도 그렇고 시내권도 그렇고 으리으리한 건물들에 없는게 없는 거리를 보며 호치민이라는 도시의 발전된 모습에만 집중해왔는데 스마일레스토랑을 통해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근우”



||

스마일 레스토랑은 내게,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안하고 즐거운 활동이다. 미리 준비해 가야 할 것 없이, 그 상황에 맞춰서 주어진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편안하고, 그곳에서 다른 다양한 봉사자들과 관계 맺을 수 있어서 즐겁다. 그 중 John 할아버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앞치마에 사탕을 한가득 넣고 다니시며 스마일 레스토랑에 온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John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 예쁜 마음이 참 좋다.



“하은”

스마일 레스토랑에서 내가 맡았던 역할은 배식과 설거지였다.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아주머니께서 요이!(gioi, 잘했어) 라고 해주신다. 시선이 마주치면 예쁘게 웃어주시기도 한다. 나는 그 말이 좋아서 열심히 하곤 했다.

“바다”



세계번역재. 답사



우리가 뭘 했는데요!!

13일에는 UTE, 스마일 레스토랑, 흥안유치원

16일에는 레딘친 초등학교에 갔어요!

10월부터 시작될 활동지에 미리 방문해서

담당자 분과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조율했다.

뿐만 아니라, 활동지에 가는 방법과 그 주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8 입국 이체호	9 오티 & 주변사찰 투어	10 City tour ★
11 교회, 카페, 레스토랑 with 주	12 베트남어 공부	13 *담당자 (스마일, UTE, 흥안)	14 흥안에서 주변을~	15 베트남어 공부	16 *담당자 (레딘친, 베트남어)	17 khong co gi
18 교회 처음으로 주변사찰투어	19 베트남어 공부	20 스마일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	21 베트남어 공부	22 베트남어 공부...	23 베트남어 공부...	24 베트남어 공부...
25 학교 참여하는 한국공식 방문기 대안(11/1)	26 베트남어 공부	27 스마일 &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	28 베트남어 공부	29 Y class 만남!	30 베트남어 공부	31 베트남어 공부



노랑게 칠해진
날에 했어요!



Feedback

- 흥안 유치원 : 남자들이 사용하는 2층 샤워실에는 문이 없어 불편하다....



- UTE : 수업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듣고, 학생들과는 직접 만나볼 수 있어서 유익했다!
- 그 외 기타 등등 : 앞으로 계속 방문하게 될 활동지이므로 교통수단을 숙지할 것!



각자의 생각



홍안유치원에 갔을 때, 아이들이 너무나 예뻐서 아이들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아이들이 사진기가 궁금하니까 계속 만지고 싶어 했다. 그렇지만 혹시나 고장날까봐 아이들에게 건네주지 못했다.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앞으로 활동을 할 때 사진을 찍을지, 말지 고민이다.

“하은”

“씬” 이나 “한” 이 혼자가서 얘기하고 우리에게 그저 통보할 수도 있었고 오히려 그게 더 그들에게 편했을텐데도 같이 갔고 덕분에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활동지 담당자분들을 미리 만나볼 수도 있었다. 조금이라도 소통하려 하고 배려해주는 그들에게 너무 감사했다.

“근우”



네이버 재 베트남어 수업



우리가 뭘 했는데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1 교회, 카페, 레스토랑 with 선	12 베트남어 공부	13 수업서 스마일, UTE, 휴식	14 홍안에서 휴식	15 베트남어 공부	16 오토 & 주변사생활 (대만인), 베트남어 시험...	17 City tour ★ khong co gi
18 교회가 있다면 비움으로 수직이 세워져	19 베트남어 공부	20 수업서 레스토랑에서 점심시간	21 베트남어 공부	22 베트남어 공부	23 베트남어 공부	24 베트남어 공부
25 한국에서 만든거 대접!!!	26 베트남어 공부	27 수업서 + 27 한국에서 만든거 소개	28 베트남어 공부	29 Y class 수업 발표시간이 발표입니다...	30 베트남어 공부	31 마지막 수업

6명의 현지 청년 자원봉사자들에게 배우는 베트남어!!

공식적인 일정은 아침 9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지만, 열정 가득한 선생님덕에

한시간 이상씩 추가로 진행되곤 했다.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ㅠㅠ



노랑게 칠해진 날에 했어요!

기본 회화와 앞으로의 활동에 필수적인 회화를 배울 수 있고,

베트남 친구들도 사귄 수 있었어요!

처음엔 3주로 구성되었지만

필요에 의해 한 주 더 수업이 진행되었어요

(이정도면 잘한거라 생각합니다 ㅎㅎ)



Feedback

- 하루에 두 번, 두 시간씩 베트남어 수업을 듣는 것이
벅차고 피곤해서 효율이 좋지 못할때도 있었어요
- 수업이 책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 17기 각반들이 준비해야 할 것 : 베트남어 문법책과 ★단어장★(한국에서!)

각자의 생각

베트남어를 배우는 일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일이었다.

[(1) 열심히 공부한다 → (2) 배운 말을 써먹어본다 → (3) 못 알아듣네...?
→ (4) 공부 안해 → (5) 아니야 바다야 공부해라]

내 어눌한 베트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익숙해지고 나니,
오히려 베트남어 공부가 수월해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베트남어는 정말 어려워...
나는 앞으로도 저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될 테다.

“바다”

베트남 사람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배웠던 단어들을 써서
얘기하면 그렇게 반가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첫 한달동안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건 축복이다.

“근우”

각자의 생각

베트남에 와서 사실, 베트남어에 대한 갈증보다는 영어에 대한 갈증을 더 많이 느꼈다. 그래서 초반에는 베트남어 공부하는 것이 숙제처럼 느껴져서, 미루고 또 미뤘다. 그러다 보니, 팀원들 보다 자꾸 뒤처지게 되었고 그게 내게 스트레스가 되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베트남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팀에서 끝까지 베트남어를 제일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보아야지.

“하은”

베트남어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다. 일단 의사소통을 해야하지. 그러려면 쉬운 말이라도 알아야 하겠네??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과 진짜 필수동사들을 좀 외웠더니 어느정도 말이 통하는것 같다. 행복해라. 그래서 베트남어를 배우는데 가속도가 붙는것 같다. 그러다 왜 세계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지. 생각하다 우리나라 말이 공용어가 아닌것에 대해 한탄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우리나라 말을 세계 공용어로 만들어야지!

“준호”



김근우



“본인의 장점 하나만 말해주세요”

“단점이 없습니다”

“본인의 단점 하나만 말해주세요”

“장점이 없습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복학할텐데
각오 한마디만 말해주세요”

“남녀 공합은 4살차가
가장 좋아요.

아자아자 김근우!”

- 작가 인터뷰 중에서 -

<어울: 리듬>



글: 김근우



언젠가 준호가 ‘국내훈련때랑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한달동안 나는 국내훈련때 그렇게 고민하고 공감하고 가치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조차 안했던 것 같다. 라온아미에 왜 지원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그저 베트남 사람들과 이곳 생활에 집중해서 잘 ‘살아가고 있다’

한달동안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때로는 설레기도, 귀찮기도, 어색해서 힘들기도 했다. 또 그러한 만남에서 고민들도 생겨났다. 여전히 어른, 아이들과 관계 맺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어렵다. 예의라는 틀에 갇혀 형식



적인 대화밖에 나누지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스스로의 모습이 어색해 자꾸 자리를 벗어나곤 한다. 하지만 나완 달리 쉽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팀원들을 보며 더디지만 해답을 찾아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도 바뀌어 가는 것 같다.

아, 그리고 운동을 너무 안하는 것 같아 자주 가진 않지만 헬스장도 끊었고, 풋살장이 근처에 있어 5000원짜리 축구화도 샀다. 또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익숙해져 간다. 이곳의 기후, 벌레, 도마뱀, 길, 그리고 자주 가는 곳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다. YMCA 식구들과도 부쩍 가까워졌다.

또 처음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스마일 레스토랑도 이제는 일머리가 생겼다. 처음 베트남 일정을 들었을 때 교육 봉사 하러가나 싶을 정도로 활동이 교육에 편중되어 있었고 그러한 활동들이 원하는 바와 달라 실망도 했었다. 출국 전 부터 의욕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봉사'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일방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고 또한 모든 것이 도전이고 새로운 것들이었다.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피해만 왔던 아이들과 관계 맺어보기도 하고 언어 교류도 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던 상태에서 하나 둘 배워나가며 부딪혀보기도 하고...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한달이라 하루하루 설렐 수 있었고 또 기억에 남는 것 같다. 한달이 빠르게 갔듯 나머지 시간도 빨리 갈까봐 그게 단지 걱정이다 ■



유하은



“근데 폐북안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대신글만 안달면
괜찮아요 ㅎㅎ”

- 작가 인터뷰 중에서 -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싫어한답니다~
잠깐! 그런데 모든 아이들은 커서 어른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란 이렇게 감사한 존재랍니다~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글 : 유하은



“액땀했다”

공항에서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간사님들과 예상
외로 눈물 한 방울 없이 헤어지고 나서 검색대에서 가위와 칼
을 걸려서 다시 나가서 붙이고, 쇼핑백을 두고 와서 다시 들어
가서 찾아오는 일이 있어서 “우리 앞으로 괜찮을까?”라는 생
각이 들기도 했지만, 우리 꽤 괜찮게 살고 있으니, 액땀한 것
같다.



“Welcome Raonatti 16 To Vietnam”

비자 때문에 작성할 게 있어서,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공항에서 나갔는데, 나갔을 때 아주 인자한 미소의 룽총장님과, 장난기 가득한 한간사님, 찌간사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셨다. 시간이 늦어서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숙소로 들어갔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많이 자라있는 에어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가 베트남 맞나?”

이제 베트남에서 한 달차 인데, 아직도 문득문득 ‘이곳이 베트남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방에 서랍도 사고 책상도 꾸미고(미미와 강호간사님과 바다와 부모님의 편지를 책상 앞에 붙여두었다♥) 우리의 사진도 붙이면서 점점 내 방이 되어가고, 매일 요거트를 사먹으러 동네 슈퍼에, 가는 길도 이제 익숙해진 것 같다.

.....
!!!
.....

게다가 1군에 가면 내가 살던 서울과 별 다를 게 없을 정도로, 개발되어 있어서 낮설지가 않다. 그럼에도 방에서 도마뱀, 바퀴벌레, 수많은 개미들이 나오고, 무엇을 사러 가면 맨날 바가지 쓰이고, 무엇보다 언어가 다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시선강탈 되는 것을 보면, '여기가 베트남 만나보다'싶다.

“낮잠, 넘나 좋은 것”



내가 베트남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것은 바로 ‘낮잠’을 잔다는 것이다. 우리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까지라서 점심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낮잠을 잘 수 있다. 나는 이곳에 와서 잘 쉬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중인데, 내 생각에 낮잠이 일의 효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 중 하나 인 것 같다. 그래서 이곳에서 뿐 아니라 한국 가서도 시간표 짜 때 낮잠 시간을 넣어야겠다.



“매일, 메일”

베트남에 올 때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혹은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소통수단으로 카톡이나 페이스북 대신에 이메일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과 메일로 소통을 하게 되었다. 메일의 장점을 소개하자면, 일단 메일은 예상 불가능한 맛이 있다.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메일이 오기도 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답장을 기다리기도 한다. 그리고 메일을 통해 얼굴 보고는 차마 하지 못했던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편지처럼 썼다 지웠다 하며 어떤 말이 더 좋을지 고민할 수도 있다. 특히 부모님과 는 거의 매일 메일을 주고, 받는데 메일을 통해 내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
 ≡≡≡≡

서로가 요즘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고민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어서 좋고,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게 된 것 같다. 아무튼, 내가 메일을 사용해 보니 이메일을 쓴다는 것이 정성이 필요한 일인데, 나에게 매번 이메일을 보내주는 사람들 통해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지난 한 달이었다.

“페이스북을 알려준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베트남에는 요즘 페이스북을 안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베트남 친구들과의 소통 수단으로 페이스북을 알려주고 페이스북 메시지로 소통을 하는데, 자꾸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업로드 한다. 페이스북 안한다는 약속을 깬 것을 후회하는 요즘이다.





물에 잠겨있어서, 물이 발목 위로 올라오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평생 들을 천둥소리는 베트남에서 다 듣고 가는 것 같다. 가끔은 천둥이 너무 크게 쳐서 건물이 무너질까봐 걱정되지만, 다행히도 아직 살아있다.

“500원 쓰는 건데, 10000원 쓰는 듯 한 이 기분”

베트남은 화폐단위가 완전 크다. 10000동이면 500원인데,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한국 돈 500원인 10000동도 비싸게 느껴진다. 그리고 베트남은 물가가 한국보다 싸서, 한국에서 쓰던 돈만큼 이곳에서 쓰면 정말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지만, 현지인처럼 생각하고 소비하려고 노력중이다.





“우리 한국 가서도 만날 수 있을까?”

베트남에 온지 고작 17일이 되는 날에, 자꾸만 부딪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한국 가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그런 의문은 나를 너무 슬프게 했다. 내가 라운아띠를 지원한 큰 이유 중 하나가 팀원들과 지속가능한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함께 지내다 보니 흥바다 없는, 근우옹 없는, 우리준호 없는 우리 팀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그냥 우리 팀은 최적화 되어있는 것 같다. 서로의 장단점을 발견하게 해주고, 또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주는 우리 팀원들에게 참 감사한 요즘이다. 서로 다른 넷이서 딱 맞을 수는 없겠지만,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서 지내다보면 어느새 5개월이 지나있지 않을까?



“스스로 피드백”

이번 달 스스로 반성하는 점은, 베트남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 약속시간에 잘 지키지 못한 것, 정리정돈을 잘 하지 못한 것, 팀원들의 피드백에 공격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러니까 10월에는 베트남어 1일1인강, 약속시간 10분 전 준비, 정리정돈 잘하기, 팀원들의 피드백에 선공정하기를 지켜보도록 노력해야겠다.

“감사하다”

내가 지금 베트남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요즘 나는 자꾸 불평거리만 찾아냈던 것 같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기 보다는 갖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불평, 불만하기엔 너무 아까운 남은 4개월, 사랑과 감사로 가득 채워야겠다.

김바다



“라운아디에 어떻게 합격하셨나요?”

“게 미묘요”

- 작가 인터뷰 중에서 -

바쁜 일정으로 하루가 고단할 때,

거울을 보냅니다~

이렇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김.바.다

<제 목 따위의 필요없다>



글 : 김바다



9월 중반에는 한 영화를 보았다. 무튼 간에 그 영화가 미국인 두 명이 낯선 도쿄에 와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는데, 영화 중 많은 부분이 도쿄를 멍하니 쳐다보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여기 호치민에서 내가 가끔 느꼈던 감정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이고, 그래서 (당연하지만) 가끔은 내가 여기서 완전히 속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나와 호치민 사이에 아주 얇은 유리창 하나를 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왔다 갔다 한다. 어제는 버스 창밖의 풍경을 보면서, 내가 이 도시를 떠날 때의 기분을 상상해보았다. 잘 모르겠지만, 이 도시가 굉장히 그리워질 때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또 요즘은 서로 솔직할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나여도 괜찮은 사람들의 존재가 얼마나 힘이 나게 하는지 생각한다.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말할 수 있고, 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관계는 정말 드물지만 그 자체로도 소중하다.

또, 내가 받은 위로나 격려의 말들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값진 말들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오랫동안 원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들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넘나 어려운 것! 그런 면에서, 비록 같이 살고 같은 일상을 공유

하지만, 정작 어떤 고민과 작은 마음들을 품고 사는지 알 수 없어 아득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많이 고민해볼 수 있겠지!





요거트를 사 먹으러 동네 마실을 나갈 때마다, 가끔씩은 이 동네가 우리 할머니네 같기도 하고, 창문을 열면 오토바이들과 강이 보이는 호치민에 있다는 게, 그것도 한 달이 되었다는 게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요즘은 5~6월부터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으로 훑다가 아니, 그래서 내가 베트남에 지금 와있다 이거네! 싶은 생각에 새삼 놀라워하곤 한다. 또, 저번 주에는 ‘나 여기 왜 왔지’ 하는 생각을 했다. 분명 내가 라온아띠를 통해 시도해보고 싶은 삶의 방식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잘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무언가 변화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생각은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하루하루에 충실히 많이 웃고, 슬프고, 화내고, 후회하고, 다시 웃고 그러려고 한다.

지금 지내는 작은 순간들이 앞으로 어떻게 기억되고 해석될지 궁금하다 ■



조준호



“어쩌면 그렇게 키도 크고 잘생겼나요?”

“하하. 저도 가끔은 이런
저때문에 피곤합니다.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조선일보(9/25일자 1면)

- 작가 인터뷰 중에서 -

- 한국의 아들 조준호, 한국을 떠난 것으로 밝혀져, 충격 -

동아일보(10/11일자 3면)

- 한국 국내 남성 평균 외모지수 급격히 하락 -

<뻘하지 앓으면서 참신한 제목>



글 : 조준호

난 호치민에 살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라온아띠중 이었다.

두둥. 살짝 놀랐다. 앵 근데 난 산 좋고 물 좋은 시골에 살고 싶은데 왜 호치민에 있는거지 으에에에잉 징징거려야지. 이미 6일째 파주에 있을때부터 이미 질려버렸다. 뭔가 뻘한 말들이 계속 곁에서 느껴졌고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 오 그건 라온아띠니까 그럴 수 있어.

이런것도 조금 싫다.

예를 들어, 하 내가 여기 왜 있는 것일까, 나는 필요없는 것 같아!! 이러면 오 그럼 라온아띠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는거야. 그런 분위기가 뭔가 별로였다.

42



근데 왜 국민은행과 YMCA는 나를 지원하는 것인가?

너무 그들에게 미안하다. 이건 완벽한 돈낭비이다!

라운아피의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얼른 더 탐구해봐야겠다.

다시 돌아와서, 호치민에서의 생활은 그럭저럭 만족한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지만 그래도 모두 예상가능 한것들 이었다. 아직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또 한창 국제, 사회, 빈곤 이런걸로 뜨거워졌을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폭삭 식어버렸다. 지금은 솔직히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국제자원활동은 잘 모르겠고 지금은 월요일엔 UTE 화요일엔 스마일 수요일에는 흥안 목요일에는 Y class 금요일에는 레딘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적당히 쉬면서 다음주 일정을 준비하는 것, 딱이게 내 일이지 그런 거대한 주제들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뭔가 YMCA가 최초의 그리고 나중에도 꾸준히 기획했을 어떤 ‘아
얘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정도 생각은 하겠지!’ 할만한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솔직히 그 외의 것이 나에게서는 훨씬 중요하다 현재.

일단 외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 기타 치는 법, 사진 더 이쁘게
찍는 법, 힘들 때 쉬는 것과 일하는 것의 균형을 맞추는 법, 하다 못해
이 보고서는 어떻게 이쁘게 꾸밀지 등등

간사님 죄송합니다. 겁나 열심히 하겠다고 막 베트남을
민주주의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흑흑 이려고만 있네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면 일단 내가 세상에서 가장 짱이ㄷr...★
그리고 필요성을 깨닫기 전에 억지로 뭔가 그래야 할것 같으니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아예 안해서 내가 맞으면 좋은거고 크게 데이면 더
큰 동기로 작용할 것이고,, 그래서 암튼 지금이 너무 좋다. 돼지처럼
살고 있지만~ 뭐 어때~

으어 드디어

보고서

끝났네★



엄마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봉사활동은
살아보는 거야



리미
리미

엄마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 꼬리말 >

진짜진짜진짜진짜 식사한 말이긴 하지만
가만 보면 한달동안 딱히 뭐 한것도 없는것 같네요.
사실상 한달동안은 Y에 박혀서 베트남어 공부만 했지만
이 한달이라는 시간이 남은 4개월을
더 갑사지게 만들어 줄것 같습니다.
카. 이말은 내가 말하고도 추하네.
하하. 암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끔 하, 내가 다른 나라에 갔으면 어땠을까
부럽기도 하지만 역시 남의 떡이 더 커보이는 거겠죠?

하하. 수고했어 오늘도





Food

정체모를 국수
이거먹고 다음날
하운이 누나가 아팠다 히히



“정체모를”



FUCK

꺼뎌!!
Y주변에 많아서 자주 먹는다.
밥이랑 오이, 토마토, 돼지고기가 주재료다.



☆



흔히 아는 쌀국수와는 살짝 비슷하다.
“분”이라고 했던것 같다. 아마?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기로 했다!
목사님과 한컷!



우리 베트남 Y의 한 간사님
동그란 안경이랑 교정기가 너무 좋다ㅠ

우리 베트남 Y의 씨 간사님
보다시피 매우 예쁘다



우리 베트남 Y의 어머니
★ 호아이모 ★
우리 엄마보다 맛있는 밥을 해주신다

"DANCE"

하은이누나가 밀크티를
겁나게 좋아한다
짜스어 짜스어



Wow!



우기의 베트남은
아주 굉장하다...



신기한게 베트남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길에도 널려있다



전에 길에서 절절매고 있을때,
이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연락이 닿아 저녁도 같이 먹었당~



그럼 다음달에 뵙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맛깔나게 살아보기

In viet nam, nyam nyam

jjup jjup gae go sang

초판 1쇄 발행 2016년 10월 11일

지은이 배짱이 디자인 조준호

출판사 아디출판사

주소 베트남 YMCA★

© 두노핑, 2016

* 잘못된 책은, 너가 틀린거예요.

* 책을 보고 무작정 따라하지 마세요. 책임지지 않아요!



라운아띠의 뉴스

라운아띠 지음 / 베짱이 옮김

- “자, 이제 달는 나눔 시작해볼까?”
- “사무국에 매달 제출하세요”

여자친구 집에 이 책이 있는 것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 작가 인터뷰 중에서

헬로 잇츠 미

- 아델 (유명가수)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값 150.000 VND

ISBN 978-89-01-8792-7



9 788994 264400